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유기동물 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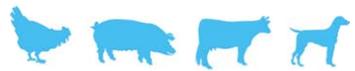
김영철 / 수원 하이펫동물병원장



싱가포르 Mount Pleasant Animal Hospital 전경

우리나라의 유기동물의 발생 빈도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더욱 눈에 띄게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 동물보호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시설, 관리시스템 부재로 효과적인 대체 방안이 없어 많은 수의 유기 동물이 거리를 떠돌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 수위를 넘어서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때를 맞춰 경기도 축산과에서는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 까지 4박 5일 동안 각시군 유기동물 관련 담당자들과 경기도지부 백충기 회장님과 전병준 부회장, 그리고 상임이사인 필자까지 총 14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비교적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유기동물의 관리시스템을 시찰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4박 5일간 우리 연수단은 싱가포르에 서는 정부 기관인 농·식품 수의국 동물 복지 및 통제 센터(Center for Animal Welfare & Control, 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AVA)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학 대방지협회(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 SPCA) 및 Mount Pleasant Animal Hospital을 방문하였고 홍콩에서는 동물학대방지협회(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 SPCA) 와 유기 동물보호협회(Society for Abandoned Animals : SAA)를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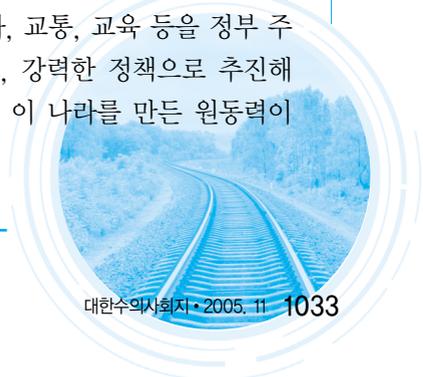
Mount Pleasant Animal Hospital 앞에서 전병준 부회장과 필자

싱가포르로 가기위해 홍콩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로 했던 우리 일행은 7월 11일 새벽부터 쏟아지는 폭우로 인천 공항에서 몇 시간을 대기해야만 했고, 출발이 지연 되었던 비행기 시간 탓에 홍콩에 도착 한 우리는 싱가포르 행 비행기를 놓치고 태국 방콕을 거쳐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현지 시간 밤 11시였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를 위해 우리는 첫날 일정을 고스란히 공항과 비행기 안에서 희생해야만 했다.

다음날 아침, 호텔 창문 너머로 싱가포르 아침 전경이 눈앞에 들어왔다. 유난히 규제가 많은 나라 싱가포르. 인구 400만명, 우리나라 수원시와 비슷한 면적의 40년에 불과한 짧은 역사와 자원이 없는 척박한 이 도시국가가 주요 산업국가와 연대를 맺고 동남아 일대의 물자와 서비스, 정보를 유통하는 중심지로 우뚝 서서 금융과 바다를 통한 중계무역의 중심지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4위의 부국으로 성장하는데 불과 20여년 세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환경, 관광, 주택, 의료, 물가, 교통, 교육 등을 정부 주도하에 시스템화 하고, 강력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는 면이 오늘날의 이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AVA 산하 동물복지관리센터 전경



다녀왔습니다.



왼쪽부터 강형근(경기도청 축산과), Sherry Nee(AVA 교육프로그램 담당/동물학박사), 백충기(경기도수의사회 회장), Leow Su Hua(AVA 동물복지관리 센터 책임자/수의학박사), 전병준(부회장), 필자(상무이사)

Mount Pleasant Animal Hospital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는 시간이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출근해 주기로 한 한국인 의사인 Dr Dennis Kang Choi는 어렸을 때 호주로 이민을 가서 시드니 대학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이곳에서 근무한 지는 1년이 조금 넘는다고 했다. 싱가포르 국내에는 수의학과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특히 영국이나 호주의 면허를 가진 의사들이 이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대 동물 사육이 전무하고 모든 축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수의학과를 설치하여 투자하기 보다는 정부에서 필요한 인력만큼 우수한 학생들을 시설이 좋은 외국에 보내 장학금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필요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었다.



동물복지센터 내 유기동물방지 홍보 전시관

미리 약속된 싱가포르 Mount Pleasant Animal Hospital 방문을 위해 버스로 이동하면서 우리 일행은 거리의 청결한 환경에 놀랐다. 오래전부터 녹색 도시 건설을 목표로 맨 흩어 보이지 않게 수백만 그루의 나무와 야자수 관목을 심었고 국가 전체가 식물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거리와 공터에도 모두 잔디가 심어져 있고 조경이 잘 되어 있었다.

우리 일행이 방문하기로 한 Mount Pleasant Animal

우리가 방문한 동물병원은 국내에 4개의 분점을 가지고 있는 메인 병원으로 잘 구획된 내부에서 효율적인 진료를 하고 있었다. 의사 6명에 수의 테크니션, 수납과 안내 직원으로 구성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진료보조 테크니션의 역할이 활성화 되어 있었다.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수영장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고 마침 우리가 방문하고 있을 때 골절 수술을 받았던 포인터 한 마리가 수영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흔한 전염성 바이러스성 질병은 거의 볼 수 없고 더운 지방 때문인지 피부병



싱가포르 SPCA에서 유명 연예인이 유기견 입양을 홍보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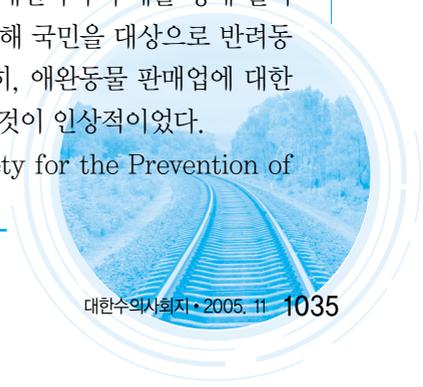


광명시 P7150767 : 홍콩 SPCA내 동물진료소

과 소화기계 질병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점심식사 후 오후 2시 30분을 조금 넘긴 시간에 우리는 농식품수의행정국(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 AVA) 산하 동물복지관리센터(The Centre for Animal Welfare and Control)를 방문하였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Dr Leow Su Hua도 역시 영국에서 공부한 의사로서 국비 장학생으로 수의학을 전공하고 정부 기관인 이곳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고,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Sherry Nee Soh Yen도 역시 우리 일행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었다. 싱가포르에서 판매 가능한 애완동물은 총 11종으로 개, 고양이, 토끼, 친칠라, 기니픽, 햄스터, 저빌, 생쥐, 관상조류, 관상어, 거북이이며 이외에 동물을 판매하게 되면 불법으로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는다. 이들 중에서 유기동물 발생이 제일 많은 것은 역시 개와 고양이로 생활환경 오염과 공중위생문제, 보행자의 안전위협, 사람에게 대한 교상, 교통사고 유발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싱가포르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1개 팀(5인)씩 배치하여 동물을 구조·포획하고 있었고 구조·포획된 동물들은 유기동물(stray animals)과 미아동물(lost animals)로 분류되며, 유기동물은 48시간 내에 도태(culling) 및 보호(homing)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대상 동물은 동물학대방지협회로 이양되어 관리하고, 주인이 있는 미아동물은 5일 동안 계류 후 찾아가지 않는 동물에 대해서는 도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이곳에서는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유아기나 초등학교 시절부터 생명의 존엄성, 동물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 등을 교육하고, TV나 신문을 통한 유기동물 방지 캠페인, 전시회를 통한 대중 홍보, 매년마다 주제를 정해 벌어지는 대 국민 홍보 캠페인, 교육교재 출판, 포스터제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특히, 애완동물 판매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사전허가제도, 정기적인 검열, 판매동물의 상태 점검-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다음날 우리는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동물학대방지협회(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다녀왔습니다.



홍콩 SPCA 내 동물보호소

아 동물 학대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짐작케 하였다. 이곳의 주된 업무는 AVA에서 이양되는 동물들의 관리 및 분양, 사육포기 동물이나 유기동물의 수집, 동물 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 24시간 응급 구조, 재 분양으로 동물들의 새 보금자리 찾아주기, 애완동물 교육 상담,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및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방문을 마치고 우리 일행은 이날 오후 홍콩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빠듯한 일정으로 여유는 없었지만 저마다 관심사에 피곤한 줄 모르게 홍콩 공항에 도착하였다.

홍콩에 도착하여 숙소로 가는 도중에 안내원으로부터 들은 현재 홍콩의 현실은 말로만 듣던 예전 모습이었다. 중국정부로 이양된 후 대다수의 많은 부호들이 해외로 이주하였고, 중국본토에서 넘어온 중국인들로 인해 부유하고 화려했던 모습이 많이 퇴색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역시 오랜 동남아의 관문으로 무역을 담당했던 과거의 우아하고 웅장한 모습은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피곤한 하루를 쉬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홍콩의 동물보호협회(Society for Abandoned Animals : SAA)로 향했다. 1997년 6월 설립된 민간단체로 직원 17명, 회원 1,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아지 180두, 고양이 60두, 돼지, 염소, 닭 등을 보호·관리하고 있었고 모든 경비는 축주들의 기부금, 회원들의 회비, 바자회를 통한 성금 모금 등으로 충족하고 있었다. 주요 업무로는 위탁된 동물 및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 미아동물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가난한 애완동물 주인들을 위한 저가의 진료 서비스 제공,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곳에서 보호·관리되는 동물들은 대부분 주인이 포기한 동물이거나 정부로부터 관리가 이양된 동물들로 수명이 다하거나 혹은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될 때까지 이 단체에서 관리·보호 하고 있었다.

이어 오후에는 홍콩의 동물학대방지협회(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 SPCA)를 방문하였다. 1903년 자원 봉사자들에 의하여 설립되어 수의진료부(Veterinary Service

Cruelty to Animals : SPCA)를 방문하였다. 싱가포르에는 1953년에 설립되어 직원 25명, 회원 5,000 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강아지 100 여 마리와 고양이 100 여 마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이 전혀 없는 순수 민간단체였다. 협회를 운영하는 경비는 모두 회원들의 연회비, 시민들의 성금, 바자회, 길거리 모금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었으며, 특히 시민들의 성금이 많



홍콩 SPCA 내 동물진료소 처치실

Department), 시장 개발 및 홍보부(Marketing & Communication Department), 동물 복지부(Welfare Department)로 구성되었으며 150명의 직원과 24,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요 재정수입 분포로는 수의진료 52%, 광고 9.9%, 회원회비 9.6%, 기타 수입 등이며 1년 수입(48백만 달러/홍콩달러)이 지출(45백만 달러/홍콩달러)을 상회하여 연간 3백만 달러의 흑자를 내고 이 재정으로 모든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이 단체의 주요 업무는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시민의식 고취,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 동물 학대 방지 및 감시, 모든 생명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메시지 홍보 등이다.

동물 학대 감시단 운영을 통한 일반 시민과의 대화, 다양한 공공시설의 관리, 애완동물 판매점의 상태 점검, 동물보호시설의 방문, 동물 복지 보호 단체 및 홍콩행정청과 공동으로 동물 복지 문제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정신 함양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은 SPCA의 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으로 자원 봉사자들이 동물들을 보호·관리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동물들은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어 진다. 이곳의 특이한 것은 수의진료부가 있어서 유기동물이나 일반 진료를 병행 하며 일반 진료의 수입으로 유기동물을 무료진료를 한다는 점이였다. 우리와는 다소 다른 현실임을 느낄 수가 있었다.

짧은 4박5일의 기간 동안이었지만 우리 연수단 일행은 유기 동물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생명이란 소중함을 다시 한번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다. 천덕꾸러기roman 여겼던 유기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이는 동물복지와 연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우리의 과제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경기도 축산과가 나서서 각 시군 담당자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느냐를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본다.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은 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에만 맡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의사들이 참여하여 정부나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학교 교육이나 대 국민 홍보를 통해 동물사랑에 대한 의식이나 생명의 소중함, 동물들과 더불어 인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 유기동물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유기동물 문제를 포함한 동물복지에 우리 수의사들의 관심이 더 한층 커졌으면 하는 기대를 하며 이번 연수를 위해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수**

